

‘붓 끝에 담긴 고뇌와 번민’ 시대 메시지를 고민하다

허달용 개인전 ‘고백-와글와글’
내달 4일까지 남구 양림미술관
인간·동물·식물·상형문자 소재
“민중미술 넘어서는 정체성 고민”

수묵을 통해 시대의 풍경을 직시해온 허달용 화백의 개인전 ‘고백-와글와글’이 오는 8월 4일까지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명 ‘고백-와글와글’은 서로 대조적인 이미지를 조립해 차용한 것이다.

‘고백’이란 조용하고 진실되고 바르며 참된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 ‘와글와글’은 온갖 것들이 난무해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나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다.

허달용 화백은 상반된 의미와 이미지를 대입해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전시작들은 크게 인물과 동물, 식물(나무), 그리고 상형문자 등 4개 파트로 나뉜다. 인물을 다룬 작품으로 ‘가시관을 쓴 예수’, ‘홍범도 장군’, ‘너는 누구길래’가 눈길을 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의 고통,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철

거하려 했던 현 정부의 우회적인 비판 등을 담았다.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 중 대표작은 ‘고양이’다. 검은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색감의 대조로 ‘와글와글’한 느낌을 강조된 이 작품에는 자신을 속박하던 규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투영됐다. 그림은 고양이를 돌보며 관찰했던 시선을 조형적으로 풀어져 있다.

‘말’을 그린 그림은 섬세한 필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수작이다. 말의 휘날리는 갈기와 목덜미의 털을 세필로 그려 역동하는 백마의 기운을 돌구어 준다. 또 다른 ‘말’ 그림은 눈물을 흘리는 듯한 말의 말 없는 표정이 압권이다. ‘표범’은 지금 막 화면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는 듯하고, ‘까마귀’는 나무에 지탱하는 발톱을 세밀하게 그려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재의 다양성은 민중미술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허 작가는 한때 민중미술 영역에서 광주 현실주의의 수목화의 줄기를 이어왔으며 예술로써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노력해왔다.

특히 1980년 5월을 형상화한 작품뿐 아니라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데 고민해왔다. 그러나 최근 작가의 작품을 규정지어왔던 것들로부터 탈피해 또 다른 시선

과 방식으로 작품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어쩌면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화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의지일수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하겠다는 변화와 전환의 심정일 수도 있다.

화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상이었다. 이번 전시에서 소재의 새로운 시도는 상형문자다. 화면 가득 한글로 쓴 글자를 조형적으로 구성해 표현했다. 장문 밖의 풍경으로 펼쳐진 ‘세한송백’, 절벽 넘어 세계와 통하는 ‘섬’ 또한 작가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대 이후의 삶과 연결된다.

허달용 작가는 20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 초대전에 참여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지방검찰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시교육청, 6.15통일학교, 국립광주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이사장과 광주광역시 혁신위원, 광주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 회원, 연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허달용 작 ‘말’. 양림미술관 제공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예술의 시도 ‘숨 공장’

내달 17일 ACC 예술극장1
홍콩과 국제협력 무용 공연
‘무대 간소화’ 환경보호 실천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룬 예술 공연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국제협력 신작 무용 공연 ‘숨 공장’을 오는 8월 17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현대무용에 라이브 연주가 더해진 ‘숨 공장’은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공연은 도시문화가 야기한 기후위기 문제를 짚어내고 기후 위기 문제의 원인자이자 피해자인 인간이 곧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예술로 표현한다.

‘숨 공장’의 제목 띄어쓰기는 음절과 음절 사이의 의도적인 휴지를 통해 읽는 이와 관객이 단어와 작품의 의미를 생각

해보길 바라는 의도를 담았다.

공연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 외에도 무대장치 간소화, 공연 제작과정 등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예술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탐색한다.

제작은 한국의 ‘허 프로젝트’와 홍콩의 ‘톨박스 퍼커션’이 함께한다. 각 예술단체가 가진 예술성의 만남 외에도 한국과 홍콩의 문화와 환경의 교차점을 통해 국제협력의 의미를 살린다.

‘허 프로젝트’는 한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허성임 안무가를 주축으로 하는 단체로 허 안무가는 2023-2025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아티스트로 선정돼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허 안무가는 “기후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 간에 연대 의식을 만들어 동참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첫걸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이번 작업에 임하게 됐

다”라고 밝혔다.

협력단체인 ‘톨박스 퍼커션’은 마카오 오케스트라 타악기 수석단원인 루이스 시우(Louis Siu)가 지난 2012년 창단한 타악 전문 연주 단체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설치 예술, 오케스트라 연주, 장소 특정형 공연, 커뮤니티 공연 등 타악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CC는 올해 ‘숨 공장’의 시범공연 후 관객과 전문가의 평가를 반영해 내년에도 본 공연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관람연령은 7세 이상으로 입장료는 전석 무료다.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동시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인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연”이라면서 “많은 관객들이 함께해 공동의 문제로 공감대를 확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아르플래닛’ 기획, 최현호 피아니스트 독주회

내달 4일 ACC 예술극장2
헨델·슈만·브람스 곡 연주

광주에서 청년 음악가들이 모인 공연단체 ‘아르플래닛’이 광주 출신 최현호(사진) 피아니스트 초청 독주회를 오는 8월 4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공연에 나서는 최현호 피아니스트는 최혜지 아르플래닛 대표 겸 공연 기획자의 피아노 스승이다. 이번 공연은 제작자 만든 무대를 스승이 빛내는 연주회인 셈이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헨델 모음곡 ‘B플랫장조 HWV 434’, ‘슈만 소나타 2번’, ‘스크리아빈 소나타 2번’, ‘헨델 미뉴에트 G장조’, ‘브람스 헨델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등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피아니스트 최현호의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연주를 토대로 뛰어난 작품 해석력이 기대된다.

피아니스트 최현호는 광주예술고등학교 음악과를 수석 입학했고, 수석 졸업한 이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실기수석에게 수여되는 ‘고 오정주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또 동대학원 석사, 보스턴 뉴잉글랜드음악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공부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다양한 콩쿠르, 공연 등 연주활동을 이어가

고 있다.

최혜진 아르플래닛 대표는 “초청 연주 무료 관람을 통해 지역 내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음악 전공생들에게는 큰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도권에 비해 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만큼 앞으로 시인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즐길 다양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네이버 폼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070-8983-8419)로 문의.

도선인 기자



채수정 소리단 ‘뿌리 깊은 소리’ 초청공연

내달 3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국립남도국악원은 채수정 소리단 초청 공연 ‘뿌리 깊은 소리’를 오는 8월 3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채수정 소리단’은 채수정 명창을 주축으로 그의 제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판소리를 바탕으로 민요, 창극 등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채수정 명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로 범패와 진도씻김굿 등을 사사 받았으며, 우리 음악의 원형을 전승·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절에서 주로 재(齋)를 올

릴 때 수반되는 소리인 ‘범패’를 시작으로,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 흥보와 흥보마누라가 박씨를 심어 열린 박을 타며 톱 소리를 표현한 흥보가 중 ‘박타령’, 이도령과 춘향이 애절하게 석별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춘향가 중 ‘이별가’, 진도 세습무가 출신의 당골 고 채정례 명인으로부터 사사 받은 채정례본 ‘진도씻김굿’으로 순서가 이어진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8월 3일 채수정 소리단을 초청해 토요일상설공연을 연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

도선인 기자



@jnilbo
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